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

민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363페이지)

력사학분야에도 아직 해명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고대중세사분야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미해명문제들이 남아있다.

유럽고대사와 중세사의 구분점으로 알려져있는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문제도 그러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중세초기의 유럽력사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며 동방력사에 비한 그의 후진성을 명백히 밝히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민족대이동》은 유럽에서 4~7세기 게르만족, 슬라브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들이 로마령역에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제각기 자기들의 국가를 세우고 유럽력사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사건이었다.

《민족대이동》에 참가한 종족들은 당시 전반적으로 민족형성이전단계 즉 원시공동체사회말기에 처해있었다. 아직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은 종족들의 대이동이라는 의미에서 《민족대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족대이동》은 사실상 민족과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대이동》에 참가한 종족들에게 피줄의 공통성, 언어의 공통성과 같은 민족의 주요징표들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있었으며 또 이러한 대이동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수 있는 징표들이 더욱 공고발전되었기때문이다.

《민족대이동》의 원인으로 된것은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속에서 새로운 토지와 재산을 얻으려는 욕망이 커진것이였다.

당시 《민족대이동》에 참가한 원시종족들은 농사와 목축을 기본생업으로 하고있었는데 씨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재산상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씨족상층과 친병들속에서 토지와 재산에 대한 욕망이 커졌다. 특히 동방종족인 흉노족들의 유럽침입으로 땅과 재물을 빼우게 된 게르만종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고대로마제국의 주변에서 살고있던 그들은 당시 로마제국에서 노예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국력이 심히 약화되어 멸망의 운명에 처하여있을것을 리용하여 이 나라에 대대적으로 침입하였다.

《민족대이동》의 직접적동기로 된것은 흉노족*¹들이 게르만족*²의 한 갈래인 고트족들을 습격한것이였다.

서쪽으로 이동하여온 흉노족은 375년에 돈강과 드네스뜨르강 중간지대를 차지하고있던 동고트족을 공격하였으며 376년에는 두나이강중하류의 북쪽지역에 있던 서고트족을 습격하였다.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이 차지하고있던 지역은 로마제국의 동쪽경계지역이였다.

*1. 흉노족은 B. C. 4세기말~A. D. 1세기 오늘의 몽골지방과 중앙아시아일대에 살던 유목종족이었다. 48년에 이르러 흉노족은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되었다. 이후 남흉노는 중국 한나라에 복속되었으며 수백년사이에 점차 한족에게 동화되었다. 북흉노는 2세기 한나라의 타격을 받고 그 대다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지역을 거쳐 4세기 중엽에는 불가강류역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곳에 있던 게르만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2. 게르만족은 원래 위스와강류역, 발트해연안, 두나이강, 라인강, 엘바강사이의 지역,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남쪽, 유틀랜드반도와 그 부근의 여러 섬들에서 살고있었다. 엘바강을 중심으로 동게르만족(고트, 반달, 부르군드, 랑고바르드 등), 서게르만족(프랑크, 색슨 등), 북게르만족(스베아, 노르만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게르만족의 여러 종족들은 언어, 문화 및 생활풍습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동고트족은 격파되어 흉노족의 지배밑에 들어가고 서고트족들은 당시 흉노족의 침략 위협앞에 떨고있던 로마황제 발렌스(재위; 364-378년)의 승인을 받고 376년에 《동맹자》로서 두나이강을 넘어 발칸반도의 북부지역(모에시아, 오늘의 불가리아)에 이주하였다. 이것이 《민족대이동》의 직접적인 동기로 되었다.

그전에도 일부 게르만족이 로마령역안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지만 서고트족의 이동을 《민족대이동》의 시작으로 보는것은 그것이 게르만족전반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게르만족의 로마침입을 본격화시키고 로마령역안에 여러 게르만국가들을 출현시켰으며 력사발전에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되었기때문이다.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고대사를 종식시키고 중세사의 서막을 열어놓은것이다.

《민족대이동》과정에 서로마제국이 붕괴되어 유럽고대사가 끝나게 되었다.

로마제국령역에 이주한 서고트족들은 로마관리들의 압박과 무거운 세금부담을 반대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노예, 예농, 빈민들의 반로마투쟁에 합세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378년 아드리아노폴 전투에서 로마군대를 격파하였으며 황제 발렌스를 처단하였다. 381년에 서고트족은 로마와 강화를 체결하고 그의 《동맹자》로서 로마군에 참가하여 트라키아각지에 분산거주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속에서 이미전부터 분열위기를 겪고있던 로마제국은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었다.

발칸반도와 서아시아지역, 동북아프리카지역을 차지하고있던 동로마제국은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국가기구를 강화하고 군력강화에 주의를 돌린 결과 노예제적위기는 겪었지만 국가멸망의 비참한 운명을 면하였으며 그후 봉건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동로마제국과 함께 노예제적위기를 겪은 서로마제국(유럽의 서남부지역과 아프리카의 북서부지역을 차지)은 반로마폭동이 계속되는 속에 게르만족들에게 령토가 유린, 점령되어 그들의 국가가 세워지고 황제들이 고용병들에게 룡락당함으로써 476년에는 멸망하고말았다.

결국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노예소유자적서로마제국은 무너지고 이빨리아는 하나의 작은 국가로 전락되었다. 서로마제국의 멸망은 유럽에서 노예사회의 종말을 가져왔다.

《민족대이동》과정에 유럽지역에서는 봉건관계의 형성이 촉진되어 봉건국가들이 세워

짐으로써 유럽중세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민족대이동》과정에 원시공동체사회말기에 처해있던 게르만족, 슬라브족의 사회관계가 봉건관계발생기에 있던 로마제국령역의 사회관계와 결합되어 봉건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기초하여 게르만족, 슬라브족의 봉건국가들이 세워졌다.

로마제국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봉건관계의 싹인 예농(플로누스)경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3~5세기에 와서는 그것이 로마본토는 물론 제국의 속주들에게도 널리 퍼져 노예제도를 엄중히 위협하고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로마제국은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은 자기들의 점령지에서 로마대토지소유자들의 땅을 빼앗아 나누어가졌다. 분배는 고르롭지 못하였다. 보통병사들은 자기 가족을 겨우 먹여살릴수 있을 정도의 땅을 받아가지고 자유농민으로 되었다. 귀족들은 많은 땅을 받아 대토지소유자로 되었다. 노예의 처지도 변하였다. 그들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땅을 받고 그대신 주인의 토지에서 일해주거나 그에게 자기 수확의 일부를 바칠 의무를 졌다.

이렇게 로마제국안에서 싹트고있던 봉건적요소와 게르만족, 슬라브족의 무너져가던 원시공동체적관계가 호상 결합되면서 봉건관계가 형성되어갔으며 이에 기초하여 봉건국가들이 수립되었다.

유럽에 제일먼저 세워진 봉건국가는 게르만족들의 국가였다.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 동게르만족에 속하는 서고트족이 410년에 추장 알라리크의 지휘밑에 그리스지역(당시 동로마제국의 한부분)을 치고 뒤이어 서쪽으로 진격하여 이탈리아에 침입하였다. 서고트족들은 410년 8월 로마시를 침공하고 대대적인 약탈을 감행하였으며 남부이탈리아에까지 침입하였으나 추장 알라리크가 죽자 이탈리아북부로 되돌아와 알프스산을 넘어 갈리아서남부지역(오늘의 프랑스서남부와 북부에스빠냐지역)으로 들어갔다. 추장 왈리아때에 서로마제국으로부터 아퀴타니아지방(오늘의 프랑스서남부지역)을 정식으로 담보받고 이곳에 정착하여 418년 툴루즈를 수도로 하는 서고트왕국(418-711년)을 세웠다.

서고트족에 뒤이어 수에비족과 반달족, 알란족들이 로마제국에 침입하였다. 수에비족과 반달족은 게르만족이고 알란족은 비게르만족으로서 한때 라인강주변에서 살았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409년에는 뢰레네산줄기를 넘어 에스빠냐에까지 침입하였다. 에스빠냐에 침입한 수에비족은 이베리아반도서북부에 수에비왕국을 세웠다. 반달족과 알란족은 추장 가이세라크(게이체리크)의 지휘밑에 429년 지브롤터해협을 건너 로마에 예속되어있던 북아프리카에 침입하여 카르타고시를 강점하고 파괴와 약탈을 일삼았으며 439년 그곳에 반달왕국(439-534년)을 세웠다.

동게르만족의 다른 갈래인 부르군드족과 랑고바르드족들도 로마제국에 침입하였다. 발트해남해안지대에 살고있던 부르군드족은 5세기초에 흉노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457년경에 갈리아동남부(로즈강류역의 싸보이지방)지역을 점령한 후 부르군드왕국(457-534년)을 세웠다. 5세기초에 두나이강중류지대에서 살던 랑고바르드족들은 6세기에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오는 아바르족에게 쫓기워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랑고바르드족은 자기들의 추장 알보인의 지휘밑에 다른 게르만족 및 슬라브족들과 함께 동북쪽으로부터 이탈리아에 침입하여 북부지방과 법왕령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568년 랑고바르드왕국(568-774년, 수

도 파비아)을 수립하였다.

동고트족은 흉노족의 예속밑에 들어갔다가 5세기 중엽 흉노족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 점차 강해진 동고트족들은 동로마제국령토에 자주 침입하였으며 488년에는 추장 테오도리크의 지휘밑에 이탈리아에로 이주하여 당시 그곳을 차지하고있던 오도아케르왕국(476-493년,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왕국)군대와 몇차례의 전투에서 그들을 격멸하고 493년에 동고트왕국(493-555년, 수도 라벤나)을 세웠다. 그령토는 이탈리아반도, 씨칠리아섬과 달마찌아의 일부를 포괄하였다.

동게르만족에 뒤이어 서게르만족들도 로마제국에 침입하였다.

프랑크족은 4~5세기에 라인강중하류에서 살다가 로마제국이 몰락에 처하고 게르만 여러 종족이 로마령토를 정복하던 시기에 갈리아북부에 침입하였으며 특히 클로비스가 프랑크족의 추장으로 된 후 갈리아침략을 강화하여 481년에 갈리아의 북부지역에 프랑크왕국(481-843년)을 수립하였다.

앵글로족, 썬족, 유트족들은 근 400년간에 걸치는 로마제국의 지배가 붕괴된 브리튼섬에 침입하였다.

앵글로족과 유트족은 유틀랜드반도에, 썬족은 라인강동쪽과 엘바강서쪽지역에 거주하고있었는데 《민족대이동》시기 브리튼에 대한 정복전쟁과정에 점차 혼합되어 보통 앵글로-썬족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앵글로-썬족의 브리튼침략은 410년경에 썬족에 의하여 먼저 시작되어 5세기 중엽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7세기초까지 150년이상에 걸쳐 진행되었다. 앵글로-썬족은 브리튼섬의 기본주민인 켈트족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집집승과 재물들을 약탈하였으며 살아남은 켈트족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서쪽과 북쪽지역으로 구축하였다.

6세기말~7세기초에 그들은 부족별로 된 7개의 왕국을 형성하였다. 토지와 패권을 위하여 서로 끊임없는 싸움을 벌인 7왕국은 829년에 웨섹스왕 에크버트에 의하여 하나의 왕국 잉글랜드로 통합되었다. 잉글랜드라는 이름자체가 앵글로족의 땅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민족대이동》시기에 슬라브족들도 이동하였다.

※ 슬라브족은 원래 위스와강류역과 발트해연안, 까르빠띠산줄기와 두나이강류역에서 살고있었다. 그들은 6세기경에 발트해연안으로부터 두나이강류역과 흑해연안에 이르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7세기에는 발칸반도에까지 진출하여 오늘의 로씨야와 동유럽일대에 고착되게 되었다. 슬라브족은 거주지역에 따라 동, 서, 남슬라브족으로 구분되었으나 언어, 문화 및 생활풍습에서는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었다.

흉노족의 침입과 게르만족의 이동이 진행된 환경에서 6세기초부터 까르빠띠산줄기와 두나이강류역에서 살고있던 슬라브족(그들이 남슬라브족을 이룸)이 대대적인 이동을 진행하여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으로 침입하였다. 그들은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테살리아지방에 정착하였으며 589년에 그 일부는 뱌로뽀니스반도에까지 이르렀고 7세기초에는 아드리아해의 달마찌아와 이스트리아지방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7세기 중엽에는 발칸반도의 거의 전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같이농사를 하였으며 목축업과 사냥, 물고기잡이, 꿀벌치기 등을 하였다.

발칸반도에 진출한 남슬라브족은 7세기 후반기 벌가리아왕국을 세웠으며 9세기 중엽에는 쓰르비아국가를 형성하였다.

벌가리아왕국은 남슬라브족이 세운 대표적인 봉건국가의 하나이다. 6세기에 슬라브족들이 벌가리아령역에 침입하기 시작하여 6세기 후반기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속에서는 7세기 후반기부터 계급분화가 촉진되었으며 봉건적관계가 발생하였다. 한편 비잔틴인들은 슬라브인들에 의하여 점령된 지역에 대한 옛 지배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지역에서의 국가형성을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벌가리아의 북부령역에서는 7개 슬라브종족들의 봉건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7세기 70년대에 남부베싸라비아로부터 한때 벌가르인이라고 부른 튀르크어계유목민(쥬르크라고도 부름)들이 벌가리아령역에 침입하였다. 아스빠르트한을 우두머리로 한 벌가르인들속에서는 토지점유에 기초한 봉건관계가 점차 형성되어갔으며 그들은 슬라브인들과 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을 예속시키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던 비잔틴은 681년에 벌가르인통치자 아스빠르트한과의 강화담판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새로운 벌가리아국가(벌가리아의 첫 왕조 681~1018년)를 인정하였다. 이후 벌가리아는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였다. 9세기말에 벌가르인들과 슬라브인들이 완전히 융합되어 벌가르(벌가리아)라고 부르는 슬라브민족이 형성되었다. 수적으로 적었고 문화수준도 낮았던 벌가르인들은 이 국가에 자기 종족의 이름만을 남기었을뿐이다.

6~7세기 발칸반도의 서부지역에 이주정착한 남슬라브인들은 쓰르비아인, 흐르바쯔까인, 슬로베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등 여러 종족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가부장적씨족제에 기초한 지역적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였다. 이 종족그룹들은 통합을 강화하면서 9세기에 이르러 쓰르비아국가와 흐르바쯔까국가 등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속에서의 봉건관계는 발생단계에 있었으며 아직 공동체제도가 지배적이였다. 그러므로 《민족대이동》시기 로마제국판도안에 형성된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의 국가는 봉건국가라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종족적련합에 가까웠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역사책들에는 이 시기 유럽봉건국가들을 《조기봉건국가》라고 표현하고있다. 그후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봉건관계가 장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국가도 봉건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국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서로마제국의 폐허우에는 여러개의 독립적인 게르만인 봉건국가들이 세워졌으며 동로마제국의 판도안에도 여러개의 슬라브인봉건국가들이 세워졌다. 유럽봉건국가들의 대부분이 《민족대이동》시기와 그에 뒤이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민족대이동》은 유럽에서 고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역사적사변으로 되었다.

이때부터 즉 5세기부터 유럽은 봉건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은 다음으로 중세전반기의 유럽사회경제를 동방에 비하여 멀리 후퇴시킨것이다.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시작된 유럽중세사는 동방에 비해볼 때 800여년이나 뒤떨어졌다. 그런데다가 고대로마에 비하여 경제와 문화가 훨씬 뒤떨어져있던 원시종족들의 로마제국에 대한 정복과 지배는 유럽의 경제와 문화를 후퇴하게 파괴하였다. 게르만족, 슬라브족은 로마제국에 침입하여 정착하면서 수많은 도시와 농촌을 파괴하였다. 아직 도시생활을 알지 못하고 미개한 상태에 있던 그들은 고대로마의 문화유산을 닥치는대로 파괴하

고 자기들의 성벽과 집들을 지었다. 브리튼섬에 침입한 앵글로-색슨족이 켈트문화와 로마적인것을 모조리 파괴한것을 비롯하여 서유럽지역에 침입한 게르만족들이 특히 파괴행위를 많이 하였다.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고대문화가 여지없이 파괴된것으로 하여 유럽의 사회경제는 고대시기보다 퇴보하였다. 《민족대이동》으로 하여 멀리 후퇴하였던 중세유럽의 사회경제는 9~11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더우기 중세유럽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유럽의 사회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봉건적분산성도 《민족대이동》과 일정하게 련관되어있다. 게르만족, 슬라브족은 로마제국령역에 정착하여 자기들의 국가를 세웠으나 아직 민족적관념을 가지지 못한 원시종족들로서, 또한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사회발전, 문화풍습이 각이한 주민집단들로 구성된 특성으로 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관리체제를 제대로 세울수 없었다. 이것은 토지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요인들과 결부되어 분권적인 령주제를 산생시켰으며 그 후과로 하여 중세유럽나라들은 통일적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15세기까지도 동방나라들에 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의 반동사가들이 떠벌이는 《유럽중심주의》의 비과학성을 명백히 발가놓고있다.

《민족대이동》이 유럽력사발전에 미친 영향은 다음으로 유럽의 주민구성과 종교문제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현재 유럽의 3대주민집단인 라틴족, 슬라브족, 게르만족의 기본거주지역이 확정되었고 주민구성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라틴족은 유럽의 남부지역(현재 이탈리아, 에스빠냐, 포르투갈)에, 슬라브족은 동부지역(현재 로씨야, 우크라이나, 폴스카, 체스꼬, 벌가리아, 쓰르비아, 흐르바쯔까 등)에, 게르만족은 서북부지역(현재 도이칠란드, 네데를란드, 영국, 스웨리예, 노르웨이 등)에 기본상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민족대이동》과정에 이탈리아, 에스빠냐, 북아프리카지역에 형성된 동게르만족계통의 여러 국가는 오래 존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많고 문화수준도 높았던 옛 로마제국인들과 혼혈융합되면서 자기의 종족적존재를 상실하였다. 결국 유럽의 남부지역은 라틴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되었다.

고대유럽의 기본주민집단의 하나를 이루었던 켈트족을 비롯한 여러 주민집단이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게르만족 등에 밀려나 자기의 종족적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혈동화되어 력사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거나 그후 새로운 주민집단을 형성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원주민인 켈트족(갈리아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갈리아-로마주민족을 형성하였고 여기에 《민족대이동》시기 프랑크족이 들어와 혼혈동화되어 현재의 독특한 프랑스민족을 형성하였다. 로므니아에서도 원주민인 다키아족이 로마의 지배밑에서 일정하게 혼혈되었고 여기에 《민족대이동》시기 슬라브족이 들어와 융합을 이루어 현재의 로므니아민족을 형성하였다.

《민족대이동》에 의하여 그리스도교가 중세로부터 현재까지 유럽주민들의 기본종교로 되고있다.

1세기에 로마의 속주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는 4세기 로마의 국교로 되어 로마제국

령역에 널리 퍼졌다. 4세기경 로마제국의 최대령역은 유럽에서 라인강, 두나이강을 경계로 하는 중남부지역과 브리튼섬의 중남부를 포괄하고있었다. 로마제국령역밖에 살던 게르만족이나 슬라브족들은 자기들의 원시종교를 믿고있었다. 《민족대이동》시기 로마제국판도안에 침입한 게르만족 및 슬라브족들은 국가형성을 전후하여 자기들의 원시종교를 버리고 로마제국령역에 널리 퍼져있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국가통치에 리용하였다.

그리스도교는 4세기 동서로마의 분렬,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8세기 법왕령의 형성, 9세기 성상파괴운동 등 복잡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그리스정교와 로마카톨릭교로 대립되기 시작하여 11세기에는 완전히 분렬되었다.

결국 서유럽지역에 세워진 게르만족봉건국가들의 국교는 그리스도교의 한 갈래인 로마카톨릭교로 되었고 동유럽지역에 세워진 슬라브족봉건국가들의 국교는 대부분 그리스도교의 다른 한 갈래인 그리스정교로 되었다. 흐르바쯔까와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일부 슬라브족봉건국가들의 국교는 로마카톨릭교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전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중세유럽은 종교적암흑의 시기로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지배는 유럽의 력사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오늘날까지도 유럽주민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교를 믿고있다.

이와 같이 《민족대이동》은 유럽에서 중세사의 서막을 열어놓았으며 사회경제발전과 인종구성, 종교에도 영향을 준 하나의 중요한 력사적사변이었다.

실마리어 《민족대이동》, 유럽중세사